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한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근일 대종사



마조(馬祖)가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있으니, 어느 날 회양선사가 마조 앞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묻기를 "벽돌을 갈아(磨塼) 무엇하시렵니까?"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하였다.

마조가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하니, 회양선사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찌 좌선하여 부처가 되겠는가?"하였다.

마조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비유하면 수레에 소를 메워 끌어갈 때,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리는 것이 곧 옳은가? 아니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하였다.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릴 것이 아니라 소를 때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이 '이야기의 참 뜻' 즉 화두(話頭)는 무엇인지는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송광사 조계총림을 개설하신 구산대선사께서는 보조국사께서 자호를 목우자(牧牛子)라고 하셨듯이, 자호(自號)를 타우자(打牛子)라고 하셨습니다. 타우자는 '소를 때리는 사람' 또는 '소를 치는 사람' 이란 뜻이니, 그냥 줄여서 '소친애' 라고도 쓰셨습니다.

〈중략〉

남악회양선사에게 누가 묻기를 "거울이 형상을 만드는데〈如鏡鑄像〉 형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울의 밝음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갑니까?"하니, 선사는 말하기를 "대덕이 어린 동자였을 때의 그 상모(相貌)는 어디에 있는가? 그와 같다"하였다.

다시 묻기를 "그렇게 형상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째서 비추지 못합니까.〈只如成像後 爲什麼不鑑照〉"하니, 회양선사는 말하기를 "비록 그렇게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를 한 점도 속이지 않느니라.〈雖然不鑑照 謾他一點不得〉"하였다. 거기에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安居掩門坐 空庭也蕭灑
霞彩紅天海 雲卷碧山野

안거하며 문을 닫고 앉아 있으니 빈 뜰은 깨끗하고 산뜻하구나. 노을빛에 하늘과 바다는 붉어지고 구름이 걷히면 산과 들이 푸르네.

行住坐臥가 수행이로다!

〈행주좌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學道之人不識眞(학도지인불식진)하고
只爲從來認識神(지위종래인식신)이로다.
無始劫來生死本(무시겁래생사본)이어늘
癡人喚作本來身(치인환작본래신)이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됨을 알지 못하고 다만 본래의 알음알이를 잘못 알기 때문이다. 끝없는 옛적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몸이라 하도다.

오늘 하안거를 결재하는 제방의 선원 대중이여! 여름 석 달을 산문 출입을 삼가며 힘써 정진하게 되었도다!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도록 정진하여 불조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

결계(結界)가 원만했고 대중이 화합하며, 단월의 후원이 지극하니 수행의 인(因)이 원만하도다.

금년 결재의 인연으로 일체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하리라.

칙천(則川)화상이 어느 날 차(茶)를 따는데 방거사가 묻기를 "법계가 몸을 용납하지 않거늘 스님은 내가 보이십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노승이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방공에게 대꾸를 했겠소."하였다.

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물으면 대답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하니 선사가 아는 체하지 않았다. 거사가 다시 말하기를 "아까 경솔하게 물은 일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선사가 역시 아는 체하지 않으니, 거사가 할을 하고는 "이 무례한 사람아! 내가 낱낱이 기억했다가 눈 밝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리라." 하니, 선사가 차 바구니를 들고 돌아가 버렸다.

心地隨時說(심지수시설)하고
菩提亦祈寧(보리역지녕)이라
事理俱無礙(사리구무애)하니
當生卽不生(당생즉불생)이로다.

마음자리를 수시로 말했고
보리 또한 그럴 뿐이네
사와 이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일세.

계묘년 하안거는 6월 3일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방부를 들이고 용맹 정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십세고금수시친(十世古今誰是親)이냐.
담연일물최위진(湛然一物最爲眞)이라.
엽화개락근유일(葉花開落根唯一)이요.
일월거래절왕환(日月去來絶往還)이로다.
십세 고금에 누가 가장 친한인가.
맑고 고요한 한 물건이 가장 참되도다.
꽃피고 잎 지나 그 뿌리는 하나요.
해가 뜨고 달이 져도 가고 옴이 없구나.

대주 혜해스님은 건주 복건성 사람으로 성(姓)은 주(朱)씨이며 월주 절강성(大雲寺 道智和尙)에게 출가득도 하였다. 그 후 스님은 강서에 있는 마조스님을 찾아가 뵈오니 마조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의 보배창고는 살피지 아니하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나에게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그러자 혜해스님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혜해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 물을 줄 아는 그 놈이 너의 보배 창고이다. 일체가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재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이 말 끝에 혜해스님은 크게 깨쳐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지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뛸 듯이 기뻐서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대주 혜해스님은 깨닫고 나서 돈오입도요문론을 직접 쓰시고 마조스님이 그 논을 읽고 인가하신 중요한 책입니다.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에

인욕제일도(忍辱第一道)다.
선수제아인(先須除我人)하라.
사래무소수(事來無所受)하면
즉진보리신(卽眞菩提身)이로다.
참는 것이 제일가는 도다.
먼저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일이 와도 받는 바가 없으면
곧 보리의 몸. 부처이니라.

묘도(妙道)는 당당(堂堂)하여 취부득(取不得) 사부득(捨不得)하니.
불가득중(不可得中)에 지마득(只麽得)이로다.
묘도는 당당하여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음이라. 얻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음이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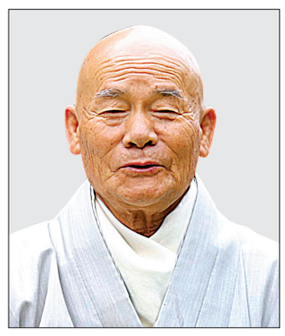
하안거 결제가 되었습니다.

해인총림은 정진하기가 좋은 도량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대중 처소는 대중이 절반 공부를 시켜준다 하시고 정진 분위기를 중요시 했습니다. 정진 분위기를 흩트리는 것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이번 하안거 결제기간 애써 정진해서 우리 모두 공부를 성취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거불횡추(車不橫推)요.
이무곡단(理無曲斷)이로다.
수레를 횡으로 밀면 굴러 가게 할 수 없고 이치는 왜곡된 말로는 밝힐 수 없느니라.

소 찾는 사람아 소 타고 소 찾나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맑은 바람 자유로워 한가하기만 하다. 일은 이 일뿐인데 여름안거가 기다리고 있었네.
願我世世生生處(원아세세생생처)
常於般若不退轉(상어반야불퇴전)
언제 어디서나 이~뭘까 한복판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바로 보려면 이~뭘까에 와 있어라.

활활 타서 재가 되어 철저하게 지워진 이~뭘까에 와 있어라.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는 큰 사랑 영(0)의 이~뭘까에 와 있어라.

언제나 정월 초하루 새 출발, 언제나 시작이다. 눈뜨면 이 일 뿐인데 아, 百事(백사)를 접고 都放下(도방하)하고 결제에 입방을 했네. 慶幸之心(경행지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았으나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얻었으되 헤아릴 수가 없다. 삼라만상이 用(용)이요, 태허공이 體(체)로다. 이르는 곳마다 신선이요, 일체에 응하니 감추어진 寶藏(보장) 속에 인연 따라 응화하네. 눈 떴다 감았다 괴이 여기지 마라. 이별한 뒤에는 보기도 드무네."

–만공스님 법문–

〈중략〉

誰知王舍一輪月(수지왕사일륜월)
萬古光明長不滅(만고광명장불멸)
누가 알겠는가, 그 시절 왕사성의 이 달덩어리를. 만고광명이여, 길이 그칠 줄 모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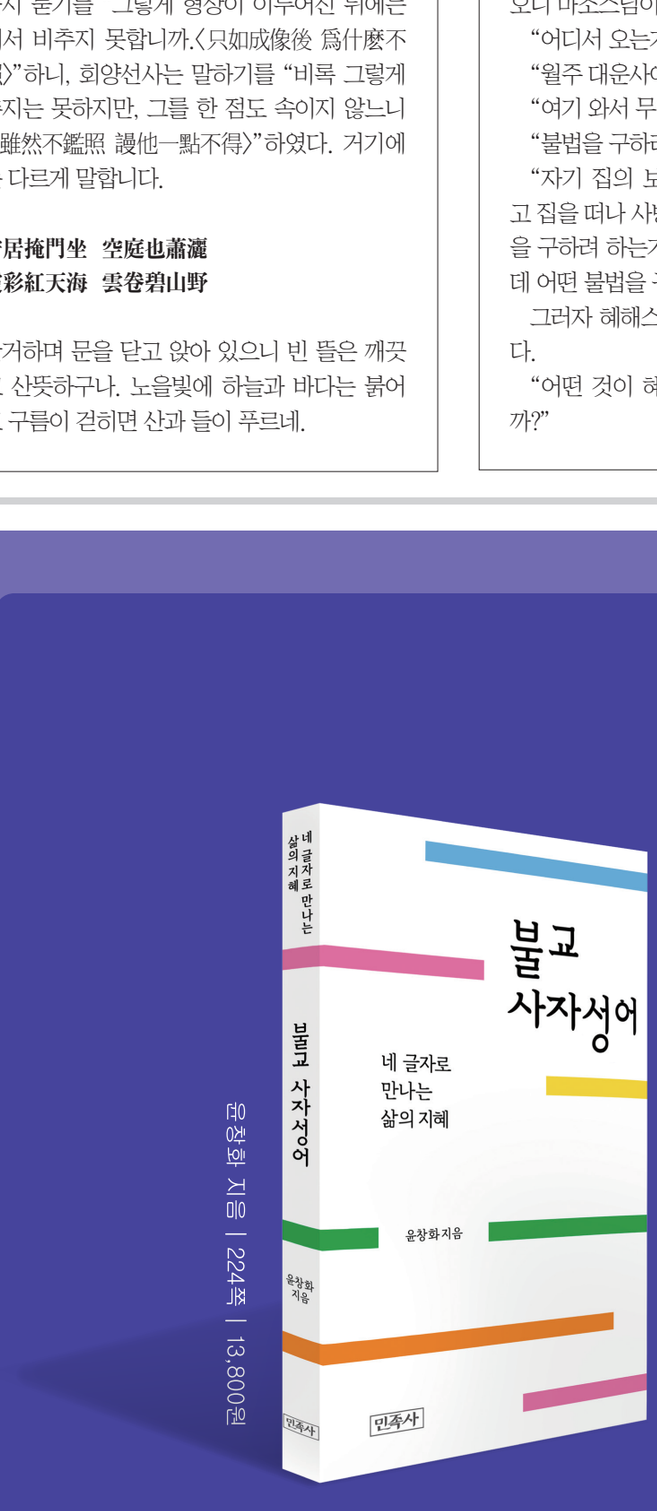
雖設雲山千萬事(수설운산천만사)
海天明月本無事(해천명월본무사)
구름 산 천만사 일도 많은데 바다 하늘 밝은 달 본래 말이 없구나.

아, 밝은 달이여!

可笑尋牛子(가소심우자)
騎牛更覓牛(기우갱멱우)
우습다. 소 찾는 사람아, 소타고 소를 찾나?

이~뭘까?
점점 뚜렷해지는 이 일 뿐이네.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